

미래 역량 · 가치 담다... 전북 인성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조화로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 인성교육 비전으로 '실력과 인성'이라는 두 토끼 사냥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 인성교육은 '나, 너, 우리' 모두가 윤리적 책임과 세계 시민성을 지닌 품성으로 조화롭게 빛어나는 것으로, 인성 다지기(Good), 인성 넓히기(Better), 인성 나누기(Best)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품성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성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 △가정·지역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성 친

'바른 인성 · 역량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 비전

전북자치도교육청,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성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중점과제 추진

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에 학생 주도의 언어문화 개선 실천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과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와 함께 JB메시저 이모티콘으로 제작 보급된다.

또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교원 존중을 위한 학생 생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활동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계회복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6,0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따뜻한 학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두번째로, 인성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를 위해 올해 18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북 온품학교를 운영한다. 전북 온품학교는 언어순화, 배려·존중, 효·예절 등 인성교육 핵심 덕목을 중심으로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사업으로 수업전문성을 지닌 수석교사 중심의 인성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초등·중·고교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온품드림'을 개발·보급한다. 온품드림은 '관심 갖기', '집중하기', '담

구하기', '성찰하기'의 나선형 단계를 적용, 나와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자기 성찰을 통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형성을 위해 1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품 명사수업도 실시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북 인성교육 통합플랫폼 '온품[On:품]'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인성교육 실천 자료 등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로,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1·2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하고, 인성교육 우수전교사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

산하기 위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이다. 이를 위해 자녀행복 더하기, 교육과정 연계 학부모교육 등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성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전문 강사단을 구성해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인성교육 정책 현장지원단을 구성, 학교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원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서 진학·취업 등 학생 개인의 성취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수 있을 바라다"며 "미래역량과 가치를 조화롭게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 인성교육을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주세무서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 경영대학에서 전주세무서(박세건 세무서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세건 전주세무서장과 함태진 소득세과장,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및 지역기반ICT경영 커플링사업 참여교수 7명과, 80여 명의 커플링 참여 학생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회계세무학과 및 지역기반ICT경영 커플링사업 대상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을 위한 상호 협력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등이 있다.

협약식에 앞서 박세건 세무서장은 "좋은 세금, 나쁜 세금"이라는 주제로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전북대학교는 지난 27일 스마트 농업과 미래수송기기 등 신사업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LS엠티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LS엠티론과 '맞손'

스마트 농업 · 미래 수송기기 등 신사업 공동 연구개발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 산학 연계 통한 인재육성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7일 스마트 농업과 미래수송기기 등 신사업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LS엠티론(대표이사 신재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주군에 전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LS엠티론은 스마트농업분야에 지속적인 R&D투자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역 농산업을 야망기업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현장 애로기술지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채용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의 미래수송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북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 양 기관의 협력이 미래 수송기기 분야 신사업 발굴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 발전의 경쟁력이 있는 농업 분야의 혁신은 농업 현장의 스마트화"라며 "이번 LS엠티론과의 협력이 대학과 지역 산업의 성공적인 동반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폭력 예방 상담기관 확대

피해학생 전문상담 21곳 → 23곳 · 가해학생 특별교육 6곳 → 21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상담)기관을 21곳에서 23곳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을 6곳에서 21곳으로 각각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특별교육기관 부족으로 발생했던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상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학부

모 특별교육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피해 학생 심리상담 · 치유 · 회복을 지원해 조기 학교적응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피 · 가해학생 전담(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기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피해학생 중심의 보다 촘촘한 심리회복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IB 교육 통해 교육방법 다양화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131개 전북미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성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 ·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AI · 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성과 도출이 주요 과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IB 교육을 통해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업 혁신 및 평가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시작한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와 IB 학교로 지정된 전주이중초등학교(교장 조연순)에는 전북미래학교 131개교를 대표해 현판을 전달했다.

현판 전달은 단순히 상징적인 학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학력신장을 위해 AI코스웨어 등 디지털교육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교(교장 조연순)에는 전북미래학교 131개교를 대표해 현판을 전달했다.

한편 전달은 단순히 상징적인 학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학력신장을 위해 AI코스웨어 등 디지털교육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4 국제학술세미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8일 교사교육센터 1층 마음연구실에서 2024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는 교육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학교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해 '대학교 연구자(교수)와 현장 학교 실천가(교사) 간의 30년간 연대 협력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초등교육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사크카르 아나리 교수(나고야대학 대학원 교육발달학과 연구과)의 '대학교 연구자(교수)관점 사례', 이시카와 교장(나고야 시립 초등학교)의 '학교현장 실천가(교사) 관점 사례'란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뤄졌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학교 혁신을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초등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세계 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학계 간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1일 수업 시수 제한 지침 수정을"

도교육청, "올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최대 6차시 운영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일 수업 시수 제한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6교시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정도다.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의 활동만 가능하다"며 "충실한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면, 이는 8~9교시가 끝나는 시간이라면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행사제한 중인 교사에 대한 탄원 서명에 3만 5천명이 참여했고, 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6만명이 참여한 일도 있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 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차려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 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체험학습 1일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6교시, 중학교는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제한했다. 특히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내실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2024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에 1일 최대 6차시 운영을 포함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안 및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당일 체험학습과 숙박형 체험학습 등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 수립에 의거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더 나은 학습결과를 이룰 수 있는 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추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